

정보량이 많을 때

1. 선을 지키는 게 핵심
2. 한 번에 이해& 전체적 글의 구조와 서술방법 파악 - 시간부족, 과함
3. 중간부터 대충 읽기⇒ 문제보기 ⇒ 다시 처음부터 읽기- 시간 부족, 부족함
4. 각 문단의 주제, 핵심 정보 위치, 그리고 세부정보의 80퍼센트 파악을 짧은 시간 안에 해낼 필요성
5. 문단별 독해가 특히 적절함

문단별 독해

1. 키워드(주로 주어부)에 동그라미
2. 결론(주로 서술부)에 밑줄 치며 쪽쪽 넘어가기
3. 비교 대조, 과정 원리, 정의에 밑줄
4. 글을 읽고 문단 내에서 서술어들끼리 한번 쪽 연결
5. 문장 간의 관계를 고민하지 않는 도구의 '의도적 단순화'

정보가 무지막지하게 많을 때 추가적 생각

1. 비교대조와 정의로 인해 정보가 너무 많을 때는 시간을 3분 이상 더 쓰기
2. 정보가 너무 많을 때는 문단 중간부터 읽어가면서 연결

EX)6월 모평 28-33번

음악에서 사용하는 소리라고 해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피아노소리가 심벌즈소리보다 듣기 좋다고 생각한다. 이중 전자를 x고른음, 후자를 y시끄러운음이라고 한다. 고른음은 주기성을 갖지만 시끄러운음은 주기성을 갖지 못한다. 일반적으로 음악에서 '음'이라고 부르는 것은 고른음을 지칭한다. 고른음은 주기성을 갖기 때문에 동일한 파형이

주기적으로 반복된다. 이때 같은 파형이 1초에 몇 번 반복되는가를 진동수라고 한다. 진동수가 커지면 음높이 즉, 음고가 높아진다. 고른음 중에서 파형이 사인파인 음파를 단순음 이라고 한다.

(STOP!!! 비교 대조가 또 나와서 글이 어려워짐, 이제 연결해가면서 읽기)

사인파의 진폭이 커질수록 x1 단순음은 소리의 세기가 커진다. 대부분의 악기에서 나오는 음은 사인파보다 복잡한 파형을 갖는데 이런 파형은 진동수와 진폭이 다른 여러 개의 사인파가 중첩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런 소리를 x2 복합 음 이라고 하고 복합음을 구성하는 단순음을 부분음 이라고 한다. 부분음 중에서 가장 진동수가 작은 것을 기본음이라 하는데 귀는 복합음속의 부분음들 중에서 기본음의 진동수를 복합음의 진동수로 인식한다.

`고른음은 주기성을 가지는 구나, 주로 음, 주기적 파형이 있구나, 파형이 몇 번 반복이 진동수, 파형이 사인파는 단순음(생똥맛아 보이지만 연결해 두기, 단순음도 파형있구나, 사인파가 몇 번 반복이 되는 지가 단순음의 진동수이구나 이런식으로 글을 다 읽은 뒤에는 꼭 연결되어야 함), 진폭이 커질수록 단순음 소리 커짐, 사인파 중첩 복잡음, 복합음 구성 단순음 부분음, 이중 진동수가 가장 작은 것 기본음, 기본음의 진동수가 복합음의 진동수구나로

`고름음과 구체적인 단순음과 복합음의 위치를 파악

`정의등의 정보는 이해되지 않더라도 우선 기억하고 넘어가기

`분류 대조 구조만 잘보고 나머지 핵심 정보 위치와 세부정보의 80퍼센트만 체크하기